

2014 수능 개편안

쉽고 어려운 A·B형...수준별로 골라서 본다

■ 개편안 주요내용

사회·탐구 1과목으로 줄여 시험문항·시간 2배로 늘려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총괄위원장 장태제 이하 대 교수)가 19일 내놓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대입수능능력시험이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20년 만에 전면적으로 시도되는 '대수술'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수능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제 및 표준점수제 도입(1999학년도), 선택형 도입(2005학년도), 수리영역(가형·나형) 출제과목 조정(2012학년도) 등으로 변천했지만 이번에는 시험방식, 시험과목 명칭 및 조정, 수준별 응시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부터 응시하게 된다.

연구회는 수험생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온 기존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수업 외에 별도의 수능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개편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준별 A/B형 시험 치른다=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험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시험의 틀을 바꾼 것이다.

우선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으로 돼 있던 과목 이름을 기초영역인 국어·수학·영어로 환원했다. 언어, 외국어 영역이 법과과학 출제로 인해 학교교육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을 의식한 변화다. 특히 언어영역은 지문을 교과통합형으로 출제한다 보니 '학교에서만 배워서는 잘 볼 수 없다'는 통념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개선 방안은 기존 수리영역(수학)과 같이 국어, 영어에 두 가지 수준의 A형과 B형 시험을 제공한다.

B형은 현행 수능(이미 발표된 2012학년도 수능시험) 수준을 유지한다.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범위를 줄이고 쉽게 출제해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없던 별도의 '쉬운 시험'이 생기는 셈이다.

수준별 시험을 치르는 데는 이공계 학생에 대한 배려도 고려했다. 지금까지는 출제범위가 넓은 수리가형을 보는 이과생들만 공부해 더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따라서 개편안을 적용해 수학B와 국어A를 선택하는 이과생은 국어 공부 부담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

또 예체능 지원자와 전문계고 학생은 사실 어려운 수능을 볼 이유가 없었다. 실기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컸다. 이제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A형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시험과목 최대 8과목→최소 4과목=현행 수능에서는 윤리·국사·한국지리·경제지리·세계지리·한국근현대사·세계사·법과사회·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11개 사회탐구 영역 과목에서 최대 4과목을 응시한다.

이날 나온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는 사회와 탐구영역에서 딱 한 과목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교과군을 도입해 유사과목을 통합한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묶어 지리라고 일반사회(법과정치·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으로 통합해 이중 한 과목



지난해 화정여중 2학년생들이 2009년 실시된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14 대입 개편안은 '2회 응시', '교과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해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을 본다든 뜻이다. 과학탐구도 I 과 II를 묶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과목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시험 문항과 응시시간을 20문항 30분 시험에서 40문항 60분 시험으로 늘렸다.

2005학년도부터 도입된 직업탐구 영역도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직업기초능력을 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고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5개 과목에서 하나만 응시하도록 했다.

또 제2외국어와 한문은 분리(1안)하거나 현형을 유지(2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과목을 조정하면 현행 수능 시험과목수(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또는 과탐 최대 4과목, 제2외국어/한문)인 최대 8과목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소 4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 1과목)으로 줄어든다.

◇수능 두 번까지 볼 수 있다=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에 8월20일과 11월16일로 나눠 두 차례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하지만 11월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난이도 문제가 발생했고 학생, 학부모가 반대해 결국 1회 시험으로 바뀐 채로 지금까지 이어왔다.

하지만 고교 3년간 학습한 결과물을 단 하루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당일 컨디션이 나쁜 학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질병, 사고 등으로 결시하거나 당일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에서도 '두 번 보는 게 좋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따라서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을 2회 시행해 그 중에서 점수가 좋은 과목 성적을 골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현행 수능과 개편안 비교

현행		개편(2014학년도)	
언어영역	수리영역	기초영역	국어 A형, B형 수학 A형, B형
외국어영역	탐구영역	영어 A형, B형	사회탐구: (6과목) 지리, 일반사회, 한국사, 세계사, 경제, 윤리
탐구영역 (최대 4과목 선택)	직업탐구: (17과목) 농업정보관리, 정보기술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농업이해, 농업기술기초,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일반, 수산일반, 해사 일반, 해양일반, 인간발달, 식품과영양, 디자인일반, 프로그래밍	탐구영역 (최대 1과목 선택)	과학탐구: (4과목)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제2외국어/한문영역			직업탐구: (5과목)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 수능 개편안 A형·B형 비교

과목	출제범위(잠정적인 예시)
국어 A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당 기본단위(5단위)를 기준으로 10단위 내외에서 출제
국어 B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과목당 기본단위(5단위)를 기준으로 15단위 내외에서 출제
수학 A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2012학년도 수능 '수리 나형'의 출제 범위와 유사)
수학 B형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2012학년도 수능 '수리 가형'의 출제 범위와 유사)
영어 A형	국가영어능력평가의 3급 시험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
영어 B형	국가영어능력평가의 2급 시험 수준과 유사하게 출제

*A형의 경우 현행 수능의 언어, 수리(나형), 외국어보다 출제범위는 줄이고 좀 더 쉽게 출제하여 수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범위가 10단위(자율학교 등의 필수 이수 단위) 수준이 되도록 추후 연구 조정 필요
*B형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중심으로 출제하고 현행 수능의 언어, 수리(가형), 외국어와 유사한 난이도 수준의 시험으로 출제하고, 각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 범위는 추후 연구 조정 필요
*영어시험의 경우 듣기문항수 확대: 17문항(34%) → 25문항(50%)
*각 교과별 출제내용 및 범위는 각 교과에서 추후 연구 조정 필요

응시횟수 늘어 시험준비 부담 가중 과목수 축소도 경감 효과 미미할 듯

■ 수험생 부담 줄여줄까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가 19일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 개편안의 핵심은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 줄여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도 줄여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어·영어·수학 등 3개 영역의 시험을 수준별로 구분해 수험생이 자신의 학력 정도에 따라 골라 응시하는 비중을 확 줄여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도 줄여보자는 데 있다.

여기에 응시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험생들이 단 하루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냈다.

하지만 현행 수준의 수능이 존재하는 이상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여전히 높고 수능 비중 약화로 오히려 대학별 보고서 부활 등의 우려도 있어 실제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특정 과목이 수능에서 빠지면 고교 수업이 과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해당 과목 교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어 정부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리영역만 가형(이과형), 나형(문과형)으로 구분돼 있고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어 수험생들에

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미술을 전공하려는 학생이나 똑같은 국어, 영어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A형(지급보다 대폭 쉬운 수준), B형(현행 수능 수준)으로 구분해 선택, 응시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이번 개편안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실제 학습부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능 응시횟수 확대가 오히려 수험생들의 시험준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응시과목 축소도 유사 과목끼리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습부담을 대폭 경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씩만 선택하게 한다지만 여기서 한 과목이란 현행 수능에서는 두 과목과 같은 출제범위에 해당해 선택과목을 최대 4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수준별 시험 역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A형과 B형 전부 준비하다가 수능 원서를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응시유형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학습부담 경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 가능 국어 B형·수학 B형 동시 선택 못해

■ 수준별 수능 어떻게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가 19일 제안한 대학수능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변경되고 모두 수준별 시험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수리영역만 가형(이과형), 나형(문과형)으로 나뉘어 있지만 나머지 과목도 난이도에 따라 시험 종류를 구분하기로 한 것이다.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형, 나형이 아닌 A형(현행 수능보다 훨씬 쉬운 수준)과 B형(현행 수능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A형의 경우 지금 수능보다 대폭 쉬운 수준으로, 현재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속하는 내용 정도를 다루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력 수준과 진학할 대학의 계열 등에 따라 국어 A형과 B형 중 하나, 수학 A형과 B형 중 하나, 영어 A형과 B형 중 하나를 골라 시험을 보게 된다. 단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고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

이번 수능 개편안이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세 과목 다 어려운 B형을 선택하지 않도록 아예 응시과목 선택 단계에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국어 B형, 영어 A 또는 B형, 수학 A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공계열 진학자라면 수학을 B형으로 하고 국어 A형, 영어는 A 또는 B형을 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우전해수욕장 매일 운행

슬로시티 종도

전라남도 신안군 KTX 한국철도공사 **엘도라도리조트** 남해관광 광주 062-225-5544 서울 1566-2233

서틀버스 매일운행

• 당일서틀: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종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용시 3천원 추가
상품	요금	
관광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20,000원	
관광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20,000원	
관광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종도(엘도라도리조트)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컬롬버스시네마** 이남점

1관 내니머피2(연재)	2관 내니머피2(연재)
2관 인센션(124)	2관 인센션(124)
3관 솔트(154)	3관 솔트(154)
4관 솔트(154)	4관 라스트에어벤더(연재)
5관 라스트에어벤더(연재)	5관 라스트에어벤더(연재)
6관 라스트에어벤더(연재)	6관 토이스토리3(연재)
7관 토이스토리3(연재)	7관 스텝업3D(124)
8관 악마를보았다(184)	8관 악마를보았다(184)
9관 악마를보았다(184)	9관 악마를보았다(184)
10관 아저씨(184)	10관 아저씨(184)

영도시청·영화시청·특별 심야상영/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o.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이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2관 아저씨(184)	3관 악마를보았다(184)
4관 아저씨(184)	5관 인센션(124)
6관 스텝업3D(124)/라스트에어벤더(연재)	7관 익스펜더볼(184)
8관 엑스펜더볼(184)	9관 엑스펜더볼(184)

영역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

CINUS

1관 악마를보았다(184)
2관 인센션(124)
3관 아저씨(184)/페가(154)
4관 토이스토리3(연재)
5관 스텝업3D(124)/솔트(154)
6관 익스펜더볼(184)
7관 아저씨(184)
8관 라스트에어벤더(연재)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선택있는 영화상영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